

대전시 기후변화 정책방향

자치정책연구부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대상국이 확실히 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대응전략도 필요하지만, 온실가스를 직간접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대전시에서는 2009년 5월까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작성한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조사를 실시하여 대전시 배출경로별 온실가스 삭감 잠재력을 평가한다. 또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하여 연차별 삭감목표 설정 및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더불어 대전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인 3천만그루 나무심기와 3대하천 복원, 자전거타기 등과 연계한 저감효과 평가도 동시에 수행 한다. 또한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신재생 에너지 시범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대전시에서는 그린시티 개념을 도입한 환경도시 창출이다. 특히 대전시는 제로에너지 사업 차원에서 대전시청사를 에코빌딩으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전시청사는 국내 유일의 에코빌딩으로, ‘과학도시=환경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청사가 에코빌딩으로 되면 공공부문 고층건물에서 국내 유일한 에코빌딩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도시들과 어깨를 견주는 관광명소의 대명사가 될 수 있다.